

지역 소식통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부안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12월 8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등 7개 분야로 천년의 송씨 쌀, 동진 수미감자, 곰소천일염, 곰소젓갈 오디와인, 액젓, 숙박권 등 총 21개 품목이며, 공급업체 선정 기준은 답례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 보관·배송 등 업무수행 능력 등이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부안군청 재무과 세입징수팀을 방문해서만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s://www.bu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보훈 문화 확산  
보훈 의전 매뉴얼 배부

고창군이 29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가족 예우에 관한 의전 매뉴얼'을 각 실·과·과·소 및 읍·면 사무소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의전 매뉴얼은 '고창군 의전편람'과 국가보훈처의 '보훈 기념행사 의전 안내'를 준용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는 통일적인 매뉴얼로 작성했다.

의전의 기본내용뿐만 아니라 태극기 위치, 국기에 대한 맹세, 묵념, 내빈소개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보훈 행사 진행시 제각각 있었던 보훈단체 의전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민선8기 고창군은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인상, 통합보훈회관 신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훈 의전 매뉴얼이 배부되어 보훈단체 의전이 명확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강행군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예결위원장·예결소위 소속 의원 찾아 예산반영 적극 협조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국회 설득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예결소위 이용호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를 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박금철 사회예산심 의관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현재 부안군 주요 건의사업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170억원)과 전북권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980억원), 국도30호선(석포~운호) 확·포장(487억원), 출포지구 배



수개선 사업(172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2288억원) 등이다.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은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세계적인 갯벌해양생태자원인 출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체류형 갯벌해양생태치유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특화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지난 7일과 23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가예산 심의를 맡은 한병도·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과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날까지 군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예산 최대한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난 29일 정읍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 “농산물 안전 생산 위해 최선을”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역량 강화 주력

정읍시는 지난 29일 정읍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판로확보와 참여 확대,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생산농가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했다.

교육은 로컬푸드 참여 농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중심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교육에는 전북과대학학교 천연물바이오과 정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과 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은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가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사를 지으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배우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출하 농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로컬푸드 참여 농가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우수한 농·특산품을 적극 홍보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판로확보와 더불어 농가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 농가의 조직화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국가예산확보 위해 국회 방문

예결위 마지막 단계 최선의 노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3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간사인 박정 의원과 장동혁, 한병도, 이용호, 유동수 등 예결소위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검토 중인 고창군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건의했다.

동시에 국회 단계에서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기재부의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을 별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고창군에서 제출한 국화단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군민 안전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적으



로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하고 국회단계에서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고창군 주요 핵심 현안사업으로는 명사십리 연안의 해안사구 복원과 안전한 해안 정비 위한

'국민안심해안 100사업의 시범사업(150억원)' 도입과 함께 '고창 덕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118억원)', '고수 하수관로 정비사업(131억원)'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첫 지급

정읍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30일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 1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7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세 지원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내년 1월까지 모금

정읍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대장정에 나선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나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범국민 이웃사랑 운동이다.

개인 기부와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3억5,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캠페인 기간동안 사랑의 온도는 355민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모금목표액인 3억5,500만원이 모이면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